

Date: 5 Elul 5786 (August 18, 2026)

Torah Portion: Ki Tetze

Topic: 자비와 연합, 제 1 부

신명기 22 장 6 절-7 절에는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다면, 너는 어미 새를 새끼와 함께 취해서는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해야 한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기에 שלוח (쉘루알 하켄) — 즉 “새끼를 취하기 전에 어미 새를 먼저 날려 보내라!” — 이 계명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인들은 여호와와의 이 계명 속에는 그 새의 보금자리 자체를 넘어서는 심오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음을 간파합니다. 미드라시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뜻의 토라의 강조적 표현인 'שלוח תשלוח'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및 자유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에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종의 해방, 둘째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오실 엘리야후(엘리야), 그리고 세번째는 궁극적으로 마쉬아흐(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연합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엘리야와의 말씀의 연관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동일한 어근 שלוח (솔레야흐) 즉 ‘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라기 4:5). 여기서 이어지는 구절은 엘리야 사명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라기 4:6). 따라서 엘리야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화해의 사명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흩어진 이스라엘 한 민족 가운데 단절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이스라엘 영혼들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한 마지막 세대를 돕기 위해 엘리야께서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미 새를 날려 보내는 행위와 구속(Redemption)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건들 — 즉 엘리야의 다시 오심과,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마쉬아흐 (משיח 메시아)의 통치 —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빛인 תורה (토라/ 신성한 가르침)로 이해하는 ‘위로(Comfort)’의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탈무드(베라코트 48b)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נחמה (네하마/Nechamah)’, 즉 ‘위로/위안’라는 인지력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재건 그 자체만으로는 그 위로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람밤(Rambam)은 예루살렘에 관한 축복에 다윗 (דוד)왕조의 회복을 구하는 간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보좌와 함께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은 이미 이사야(Yishayahu)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던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그 위로의 젖을 빨아 만족하게 하려 함이라”(이사야 66:10-11). 그는 회복된 예루살렘의 위로를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 은유는 “위로-위안”이라는 단어의 능력, 곧 그 자체의 본질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 줍니다.

태아는 9개월 동안 어머니와 더할 나위 없이 밀접한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아이의 영양과 보호,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어머니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산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분리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어머니와 완전한 밀착감을 경험했던 아이의 영혼은 갑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에 어머니는 갓난 아이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고 젖을 물림으로써 갑자기 분리되어 어리둥절한 어린 아기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안정되게 회복시킵니다. 비록 출생으로 인한 물리적인 분리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아기는 어머니와의 그 유대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본질입니다. 위로-위안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리로 인해 끊어진 듯했던 유대감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과 지적,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인간의 슬픔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실을 겪는 사람은 종종 단순한 슬픔 이상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분리'된 이후의 감정 세계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직물 속에 깊이 맺어져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깊은 위로 중 하나는 누군가의 감싸줌과 동행, 그리고 연대력입니다. 이것들은 슬픔에 잠긴 이에게 비록 하나의 유대 관계는 끊어졌을지라도 그가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위로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하랄(Maharal)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백성들 사이에서 강력한 통합의 힘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국가의 정치적,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함께 올라가는 연합하는 처소"가 있는 거룩하신 여호와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라로 명령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여호와와 절기를 손발로 지키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성전에는 온 민족 가운데서 봉헌 드려지는 제물이 바쳐지는 하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만민의 땅, 사방에 흩어져 있던 12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한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로 연합된 백성으로서 여호와 정하신 거룩한 그 한 때에, 여호와 정하신 거룩한 그 한 처소에서 해마다 다시금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샬롬